

[시작하는 글]

## 사람은 그가 한 행위로 위대해진다.

고대 인도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였던 ‘카우틸라(Chanakya)’는 왕실 고문으로 당시의 대학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은 출생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행위로 위대해진다(A man is great by deeds, not by birth).”는 그의 말은 3,0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그 속도를 감지하기도 전에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현대까지, 우리에게 사람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가를 말해 주는 듯하다.

나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 생각한다. 태어난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우성인자를 가지지 못했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위대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당리

당락에 따른 정쟁만 일삼는 위정자들이 그렇고, 자기 책임 양 오래 된 남의 책의 표지를 바꾸어 출간한 교수들이 그렇고,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관료들이 그렇고, 자기 욕심만을 너무 채우려 하는 기업의 운영자들이 그렇고, 돈을 많이 가진 일부 사람들의 행태가 그렇고, 언론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하는 언론 종사자들이 그렇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대화와 타협은 뒤로한 채 먼저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다.

카우틸라가 말한 행위와는 전혀 다른 행위들이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행위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오늘의 글귀에서 접한 ‘카우틸라’의 “사람은 출생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행위로 위대해진다.”는 말 한마디는 나에게 이 책을 출판하게 했다.

그렇다면,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는 일은 나에게 어떤 행위일까?

나는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고, 내가 쓴 글을 SNS를 통해 지인들과 나누기를 즐기는 편이다. 이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여년에 걸쳐 틈틈이 쓴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한다. 한마디로, 나는 글을 쓰는 일과 책을 출간하는 일로 위대해지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거다.

여기 소개하는 글은 모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일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 장으로 하고, 24절기를 절로 삼아 책을 구성한다. 따라서 글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내가 경험한 사실과 느낀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고상하게 말하면 체험적 인문학이고, 다르게 말하면 신변잡기다. 인문학이든 신변잡기든 내가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는 일은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행위일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미 자신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당신이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곧, 당신을 위대해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현우 유철기